

칼빈과 언약

김 인 환*

목 차

- | | |
|---------|-------------|
| 1. 서론 | 3. 칼빈과 행위언약 |
| 2. 문제제기 | 4. 결론 |

1. 서론

한국 개신교의 전통적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 혹은 개혁신학임은 이제 보편화 되었다. 이 칼빈주의 혹은 개혁 신학은 언약신학이다.¹⁾ 그러나 우리 한국 개신교에는 칼빈주의 신학이란 곧 언약신학이라는 사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가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일 때 교수님들에 의하여 구약과 신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언약의 문제가 조직신학이나 성경에 관한 여러 과목에서 간

* 신학과 부교수

- 1) Geerhardus Vos,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in Reformed Theology," in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ed. Richard Gaffin, Jr.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Reformed Pub. Co., 1980), 234. 그의 제자로써 필라델피아의 Westminster 신학교의 저명한 조직신학 교수였던 John Murray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다" (Reformed Theology is Covenant Theology)라고 정의하였다.

간히 언급되긴 하였으나 칼빈주의를 언약신학으로 동일시 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쳐 지지는 않았다. 그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 정도로 생각하면서 언약과 약속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비록 박 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 책에 언약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신학의 많은 주제 중 한 주제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언약을 그의 신학의 바탕이나 틀이라고 여길 만큼 언약의 문제가 박 형룡 박사님의 신학의 중심점이 되지 않은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²⁾ 그 결과 한국 개신교에는 언약신학이 생소하게 되었고, 칼빈주의가 곧 언약신학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1970년대 말엽부터 Westmister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본교 강단에서 강의하게 되면서 성경신학을 소개하게 되고 이때부터 서서히 언약신학이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필자가 1982년도부터 유학에서 귀국하여 본교 신학대학원에 언약신학과 성경신학 강좌를 개설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 칼빈주의 강좌와 필자가 담당하게 된 구약의 여러 강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면서부터 칼빈주의와 언약신학이 일치함을 주지시키기 시작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강좌가 개설되어 체계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성경신학을 연구한 많은 교수들이 영입되어 강의를 해 오므로 적어도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은 이제 언약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임을 어렵잖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도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 실천신학등에서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소화되어 그 신학 영역이 언약 신학적 안목으로 정착되지 않는 현실이기에

2) Geerhardus Vos는 17세기의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비록 언약을 그들의 조직신학의 한 주제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그 언약을 그들의 사상의 체계로 승화시키지 않고 일종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학자들을 가르켜 “그들을 후일 알려진 의미와 같은 연방신학자들 (언약신학자들)이라고 지칭할 수 없다”고 하였다. Vos,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235.

칼빈주의가 언약신학으로 동일시 되어 칼빈주의를 칼빈주의 답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진정한 칼빈주의자로서의 역동적인 삶을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80년대 이전에 총신을 졸업한 대 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신학이 생소하게만 여겨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서구의 신학계에서는 그것이 자유주의 이견 보수주의 이견 간에 칼빈주의 신학 혹은 개혁신학이란 곧 언약신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우리들의 칼빈주의와 같은 복음주의적 신학의 입장을 견지하는 세대주의 신학은 그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 우리들의 전통적인 개혁신학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신학적 직견을 갖지 않고는 사실 그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주의 신학자들도 자신의 신학과 우리들의 전통적인 개혁신학을 구분하면서 우리들의 개혁신학 혹은 칼빈주의 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명명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개신교가 칼빈주의임을 자처하면서도 이러한 언약신학을 소홀히 한다던가 칼빈주의 신학을 한다면서 칼빈의 개인적 신학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한국개신교의 칼빈주의를 세계의 개혁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올바르게 발전시키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란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고수하는 신학이 아니라 칼빈이 이해하였던 성경관에 기초하여 그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한 체계로 성숙시키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상의 유기적인 체계를 일컫기 때문이다. 칼빈의 주석과 그의 대작 기독교 강요를 읽어 보면 칼빈은 구속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활동을 이해하였으며, 흔히 칼빈의 중심사상인

3) Charles Caldwell Ryrie, *Dispensationalism Today*, (Chicago: Moody, 1965), 17-21.

하나님의 주권사상도 이러한 그의 구속사의 안목에서 성경을 이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Westminster 신학교에 제출한 Ph.D. 논문에서 Mark W. Karlberg는 칼빈의 신학은 본질상 성경신학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였다.⁴⁾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 개신교가 칼빈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구속역사의 안목에서 형성된 언약신학을 소홀히 한 채 칼빈주의를 철학적이거나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신학과 교회에 적용한 나머지 오늘의 한국 개신교 신학과 교회는 사변화되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으며, 이를 혐오하는 일반 풍조에 발맞추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채 아예 오순절 교회의 체험 우선주의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범람하는 각 종교 성장 지상주의 신학을 수용한 혼합주의로 전락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를 바로 잡아 하루 속히 올바른 칼빈주의를 확립하여 본래의 칼빈주의의 역동성에 힘입은 신앙과 신학, 교회 생활을 정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칼빈주의가 지향하는 삶 전체의 전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문화와 학문과 교회와 우리들의 개인생활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칼빈주의를 언약신학으로 정착시켜 세계의 개혁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와 상관된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 오해란 다름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칼빈은 언약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사상을 그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지 않은 이상 칼빈

4) Mark W. Karlberg, *The Mosaic Covenant and The Concept of Works in Reformed Hermeneutics: A Historical-Critical Analysi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Early Covenant Eschatolog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 PA: 1980), 74.

주의가 언약신학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칼빈 자신의 사상이라기 보다는 후대의 칼빈주의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된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된다면, 칼빈과 현대의 칼빈주의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칼빈주의란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가졌던 신학적 안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삶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신학이 반드시 칼빈의 신학 그 자체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사상을 떠난 별개의 신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칼빈의 신학적 안목을 기초로하여 세워진 사상이 칼빈주의라고 한다면 칼빈주의는 분명히 칼빈의 신학을 기본으로 하여 그 신학을 계승 발전시킨 신학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과 칼빈주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칼빈주의가 언약신학과 동일시 되는 시점에서 칼빈과 언약신학이 상관 없다는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칼빈과 언약신학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이러한 모순점이나 오해를 제거하고자 한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흔히 주장되어지는 바와 같이 칼빈은 결코 언약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으며, 오늘의 언약신학의 바탕과 내용이 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칼빈의 신학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이 곧 언약신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칼빈의 주요 저서인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⁵⁾

5) 역사신학적 안목에서 칼빈의 신학이 New England의 Puritan 언약신학에서 반영되고 있음은 이미 Lehigh University의 Everett H. Emerson이 이를 부정하는 Perry Miller를 논박하는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Everett H. Emerson, "Calvin and Covenant Theology," *Church History* 25 (1956): 136-44.

2. 문제 제기

먼저 이러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논거에 따라 칼빈과 언약신학이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칼빈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며, 성경의 언약이 그의 모든 신학에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그 논란의 초점을 맞추면서 언약신학의 기원에 그 논란의 중심점을 두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근간 세대주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Dallas Seminary의 Ryrie 교수는 세대주의가 근간에 발생한 하나의 신학체계임으로 교회는 이러한 사상체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O. T. Allis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체계화된 언약신학은 최근의 것이다. 그것은 초대 교회 때 분명하게 정립된 교리가 아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지도자들은 결코 이를 가르치지 않았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심지어 이를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진정, 하나의 체계로서의 언약신학은 세대주의 보다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니다.⁶⁾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선임 세대주의자 Fred Lincoln의 입장에 동조하여⁷⁾ 다음과 같이 더 부연해서 언약신학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지도자들의 신학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루터, 칼빈, 혹은 멜랑톤이 죄, 부패, 구원 등등 언약과 관련된 주제

6) Ryrie, *Dispensationalism Today*, 179.

7)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것은 물론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중세 시대의 교회지도자들에 의하여 결코 가르쳐지지 않았으며, 종교개혁 시대의 위대한 선생들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 결코 언급되지 않았던 언약신학이었다." Fred Lincoln, "The Development of the Covenant Theory," *Bibliotheca Sacra* 100 (1943): 136.

50 총신대 논총/ 김인환

들을 논하면서도 그들의 저술속에서 언약신학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언약의 개념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칼빈은 구속적 계시의 연속성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신학이 아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중심 지도자들속에서 언약신학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언약신학자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일 뿐이며, 17세기에 보다 더 풍성하게 잘 발달된 언약신학이라는 용어에 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신학은 아니다.⁸⁾

Ryrie의 연구에 의하자면, 언약 혹은 연방신학의 개념이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Andrew Hyperius (1511-1564), Kaspar Olevianus (1536-1587), Rafael Eblinus (1559-1622) 등 종교개혁 후 시대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의 신학이며, 영국과 화란에서 목회하며 언약 신학 혹은 연방 신학을 가장 잘 체계화 시킨 Coccecius의 선생이었던 William Ames (1576-1633)가 최초로 행위 언약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Ryrie의 이러한 입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언약신학이 칼빈의 후대에 발전된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입장이다. Holmes Roston III 역시 언약신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되는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와 칼빈의 신학을 비교하면서 칼빈은 언약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며, 언약신학의 여러 새로운 내용들은 모두 그의 후계자들의 업적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이러한 입장은 이들의 시대보다 훨씬 전의 학자들에게도 발견된다. 특히 James Orr는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에 기고한 Calvinism에서 언약신학은 칼빈이 죽고 난 다음 개혁신학에서 근본적으로 발달된 세 가지 신학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하

8) Ibid., 180.

9) Holmes Rolston III, *John Calvin versus the Westminster Confession*, (Richmand: John Knox, 1972), 23.

였다.¹⁰⁾ Perry Miller도 17세기의 New England의 Puritan 신학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신학은 비록 칼빈주의에 전적으로 헌신된 입장이 아니지만, 언약 신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언약 신학의 은혜 언약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칼빈의 신학 체계에는 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후기 개혁신학자들이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등에 대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대한 정통 개혁신학자들의 반발로 강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칼빈의 기본적 사상체계에다 은혜 언약의 체계를 가미하여 알미니안 주의 (Arminianism)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우월성을 보호하고, 또 무율법주의 (Antinomianism)에 대항하여 도덕적 책임성을 보존하는데 역동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칼빈이 제네바에서 기초를 놓은 신학체계와는 다른 신학체계를 세우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Miller는 이 언약신학은 칼빈주의와는 다른 신학이라고 하였다. 즉, 칼빈에게서 기원되지 않은 신학이라는 것이다.¹¹⁾

칼빈과 언약신학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이외에도 한편 칼빈과 은혜언약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칼빈과 행위언약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이 언약신학자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²⁾

10) James Orr, "Calvinism," in *Hastings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11) Perry Miller, *The New England Min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39), 365-97. Emerson, "Calvin and Covenant Theology," 136. Weir, *Foedus Naturale*, 12. David Alexander Weir, *Foedus Naturale: The Origins of Federal Theology in Sixteenth Century Reformation Though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Saint Andrews, 1984, 19.

12) Peter A. Lillback은 그의 학위 논문에서 칼빈과 언약 신학과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의 학위 논문 서론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19세기 경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도입하기를 꺼려 하던 성경신학적 방법론을 과감하게 정통 개혁신학과 접목시켜 활용하면서 정통 개혁신학적 성경신학의 기초를 놓은 구 Princeton 신학교의 성경신학 교수 Geerhardus Vos는 칼빈은 언약을 자주 언급하면서도 그의 신학의 중심점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언약을 부수적이긴 하나 하나의 독립된 주제 (a subordinate loci)로 삼아 이론을 세운 개혁신학자들의 선두였다고 주장하였다.¹³⁾ 그러나 그는 이것은 오로지 은혜언약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¹⁴⁾ 칼빈이 행위 언약에 대하여 얼마나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John Murray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Murray는 칼빈의 신학에서 타락 전 언약에 관한 특별한 개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¹⁵⁾

이에 비해 Calvin 신학교의 교수였던 Anthony A. Hoekema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은혜 언약 교리가 17세기에 화란의 Cocceius와 영국의 Puritan 신학자들에 의하여 기원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오해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자면, 이미 2세기의 Irenaeus가 이 교리를 가르쳤으나 중세 시대 때 이 교리가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16세기의 Zwingli와 그의 후계자 Bullinger 에 의하여 이 교리가 가르쳐졌고, Calvin은 그의 기독교 강요, 주석, 그의 설교에서 이 교리를 가르쳤으며, 은혜 언약의 교리는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그러나 Hoekema는 비록 Kuyper가 주장한 바 즉

Facult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 PA: 1985): 1-45. 그리고 이 논문은 저자에 의하여 축약되어 곧 Baker Book House에서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이것을 참고한 경우 괄호 안에 (BBH)로 표기 할 것임.

13) Geerhardus Vos,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in Reformed Theology," 236.

14) Ibid., 237.

15) John Murray, "Covenant Theology," in *The Encyclopedia of Christianity*.

16) Anthony A. Hoekema, "Calvin's Doctrine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Reformed View* 15 (1962), 1, 3.

행위언약에 관련된 영적 진리는 Calvin의 가르침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Calvin은 행위 언약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¹⁷⁾ David A. Weir도 1984년 영국 St. Andrews 대학교에 제출한 그의 Ph.D. 학위 논문에서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칼빈은 은혜언약의 중요성은 많이 다루어 왔지만, prelapsarian covenant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방신학 (federal theology)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eir는 칼빈의 신학속에서 행위언약적 요소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다. 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하나님과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언약적인 것으로 간주한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그는 행위 언약과 칼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 그는 칼빈이 죽은 후 80년이 지난 다음 Westminster 신앙고백서에서 행위언약을 언급하게 된 그 뿌리는 1562년 Zacharias Ursinus가 하나님의 주권과 아담의 타락에 대한 10여년의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데서 기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Ursinus는 동료 신학자인 Caspar Olevianus, Thomas Cartwright, Dudley Fenner, Franciscus Junius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1590년 이후로 이 연방신학은 전 유럽을 석권하며 만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스스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칼빈과 언약신학과 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이미 칼빈과 은혜언약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칼빈의 저술 속에서 후기 언약신학자들의 주장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한편 칼빈과 언약신학과 의 부분적 관계를 인정하는 입장, 즉 칼빈은 은혜언약은 강조하였으나, 행위언약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입장은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점

17) Ibid., 3.

18) Weir, *Foedus Naturale*, 12.

을 노정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자면, 칼빈의 저술 속에서 은혜언약이라는 어휘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칼빈은 언약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후기 언약신학자들의 은혜언약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은 칼빈이 은혜언약을 중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칼빈의 신학 속에서 후기 언약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행위언약의 요소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칼빈이 행위언약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칼빈에게서 행위 언약적 요소를 발견하였다면, 왜 칼빈이 행위 언약을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것을 꺼려하는가?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은혜언약에 관련된 내용만큼 행위언약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아서인가? 만약 칼빈이 은혜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은혜언약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칼빈이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칼빈이 은혜언약을 중시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칼빈이 행위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비록 작은 분량에서나마 취급하고 있다면 칼빈은 행위언약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는가?

Karberg와 Lillback은 Westminster 신학교에 제출한 그들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칼빈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언약에 관한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그의 신학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언약신학을 반영되었는가를 연구 보고하였다.¹⁹⁾ 그들에 의하자면, 언약에 관한 교리는 Irenaeus와 Augustine 때부터 이미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Lillback은 특별히 칼빈이 얼마나 Augustine의 신학에 의존하였는가를 밝히면서 이미 Augustine에게서 소위 행위 언약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는 이상 칼빈이 이를 놓칠리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칼빈과 언약신학, 특히 행위 언약과의 상관성을 강력히 옹호하였다.²⁰⁾

19) Mark W. Karlberg, *The Mosaic covenant and the Concept of Works*, 46-218.

20) Lillback, *Binding of God*, 34-37, 337 (BBH).

Lillback은 칼빈 당시에 성경의 언약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1) 언약 개념은 후기 중세 시대의 사회-정치적 신학적 영역에서 매우 잘 알려진 개념이었다. 2) 개혁신학의 전통은 급진주의 개혁자들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 시초부터 언약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발달하였다. 3) 개혁신학자들 사이에 이루어 졌던 성경연구에 대한 새로운 열정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언약의 현저한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4) 언약에 관한 성경에 입각한 광범위한 질문들은 이미 칼빈이 종교개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 제기되고 있었다.²¹⁾

그는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칼빈이 만약 이러한 [언약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의 시대의 문화적 신학적 맥락으로부터 비껴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그가 평가받는 것처럼 거장의 주석가와 신학자로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²²⁾ Lillback은 이러한 그의 결론과 평가를 칼빈이 얼마나 언약에 관련된 어휘를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면서 반증하기도 하였다. 그에 의하자면, 칼빈 자신이 스스로 최종적으로 개정한 그의 결자 기독교 강요 1559년 판을 분석해 볼 때 언약에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만 적어도 273회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언약과 관련된 다른 유사한 어휘를 모두 고려한다면, 그 빈도수는 매우 강력하다고 하였다.²³⁾ 그는 이것을 칼빈의 신학의 중심점이라고 알려진 삼위일체 (Trinitatis)라는 어휘의

21) Ibid., 219-20.

22) Ibid., 220.

23) Ibid., 222. 그가 조사한 어휘의 빈도수를 참고삼아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언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휘의 빈도수: pactum, paciscor, pactio: 35회; foedus 와 그 관련된 용어: 154회; testamentum: 84회.
- 2) 언약의 동의어와 관련된 빈도수: obstringes: 40회; vinculo: 79회; conjunctionis: 97회; atoptio: 77회.

빈도수 26회와 비교하고 또 언약이라는 어휘가 그의 기독교 강요 각 권의 주제와 관련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칼빈은 언약이라는 개념을 한 화제라는 개념 (a locus sense)이나 혹은 몇몇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어떤 단일한 분명한 주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이러한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불명백하다. 대신, 칼빈은 언약이라는 술어를 그의 전 역작을 총괄하는 광범위한 주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언약은 칼빈 신학의 불가분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결론지었다.²⁴⁾ 더욱이 동시대의 종교개혁 지도자이였으며, 오늘날 복음주의의 태두라고 말할 있는 Luther가 언약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칼빈의 언약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그 빈번한 사용은 그의 신학의 특징을 Martin Luther의 복음주의와 구별되게 하면서 언약 신학의 기초를 놓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칼빈의 저술을 분석하여 그의 저술에 반영된 언약 신학의 요소를 정리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언약 신학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날 언약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사이에 근본적으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 언약의 관계는 인간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통적으로 행위 언약으로 명명하였으나 근간에는 이를 주로 창조 언

24) Ibid., 224. 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각 권마다 언약 (foedus)과 그와 관련된 어휘 (pactum, testamentum)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자면, 제 1권은 하나님의 지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아직 구원론을 다루지 않는 이상 이 어휘들이 11회 정도 나타나는데 이는 칼빈의 언약이 구속적인 의의가 있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제 2권과 제 4권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다양성, 성례론, 유아 세례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두권에는 이 어휘들이 각각 86회, 129회, 모두 215회나 사용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제 3권에는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등을 주로 다루면서 이 어휘들이 47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Ibid., 223.

약으로 고쳐 부르기도 한다.²⁵⁾ 그리고 인간이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갱신하여 타락한 인간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 구속 역사속에서 이 창조 언약을 계승 성취해 가시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하여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창조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종주왕 (Suzerain King)이 되시고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자신의 언약의 복속왕 (Vassal King)으로 삼아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그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그가 안식할 영원한 안식처가 되도록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그가 창조한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되 자신에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을 복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안식에 참여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보장 받게 되었다. 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여 그들을 죽게 하겠다고 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 법을 새겨 놓으시고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한편 생명 나무를 세워 그들의 순종에 대한 영생을 보증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

25) 창조 언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자면 이 짧은 논문으로서서는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과연 이러한 요소들이 칼빈의 신학속에서 발견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근간 O. Palmer Robertson과 Meredith G. Kline이 성경신학적 안목에서 행위 언약 혹은 창조 언약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상세한 내용을 위해 그들의 책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0): 67-92; Meredith G. Kline, *Kingdom Prologue*, 1989: 1-85.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하는 결혼의 제도를 설정하시고, 또 노동의 제도를 설정하여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였으며, 하나님 자신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그의 안식을 따라 인간에게 안식의 제도를 설정하여 매 7일 마다 안식하게 하므로 노동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면서도 또한 그 날에 인간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헌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종주왕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이 창조 언약을 어기며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은 이러한 창조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의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과 더불어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 창조 언약을 갱신하였다는 것이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 혹은 구속언약이라고 명명한다. 이 구속 언약은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여러 인물과 더불어 갱신되어 오면서 유지 성취되어 오다 제 2의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새 언약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이다.

3. 칼빈과 행위언약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학자들, 심지어 개혁신학의 전통의 금자탑을 이룬 학자들까지도 칼빈이 행위언약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칼빈의 신학과 오늘의 언약신학과의 관계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 및 설교에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칼빈은 분명히 은혜 언약 (구속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라는 언약신학의 특징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날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의 제반 요소와 본질을 칼빈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러나 칼빈은 실질적으로 적어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적임을 설명하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을 [생명 나무와 무지개] 아담과 노아는 성례라고 간주하였다. 나무가 그 자체에게 줄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다거나, 무지개 (반대쪽에 있는 구름 위에 태양의 빛이 반사된 것에 지나지 않는)가 물을 멈추게 하는 효력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의 언약들의 증거 (proofs)들과 인봉 (印封, seals)들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들에게 새겨져 있는 표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²⁷⁾

이 인용구에서 칼빈이 언약을 복수로 언급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칼빈이 이렇게 언약을 복수로 지칭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가진 관계가 모두 언약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26) 이미 앞서서도 언급하였거니와 칼빈이 행위언약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해서 Bruggink는 칼빈과 언약신학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Donald J. Bruggink, "Calvin and Federal Theology," *Reformed Review* 13 (1959-60), 16ff.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많은 신학용어를 신학자들이 조어하여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며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Lillback, *Binding of God*, 332 (BBH).

2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 ed. John T. McNeill, 2 vols., tr. Ford L. Battles, (Phila., PA: Westminster, 1960), IV, xiv, 18, 1294.

이다. 즉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관계가 언약적이기에 무지개를 그 관계의 표징으로 삼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관계가 언약적이기에 생명나무를 그 관계의 표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비록 칼빈이 이처럼 언약이라는 술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언약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다른 여러 성격과 요소를 가지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추방되었다고 하였다.²⁸⁾ 이것은 범죄하기전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칼빈은 흔히 하나님의 왕국과 언약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²⁹⁾ 이것을 종합하면, 아담이 타락 전 하나님의 왕국에 있었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 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칼빈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인간의 원래의 상태가 인간이 도달 할 수 있는 최상의 복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에다 법을 심어 두시고 이 법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속에서 이 법에 순종하게 될 때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상의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음을 주석하면서 인간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로 정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에 도달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칼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그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할 때까지 인간속에서 다만 그림자로 투영될 뿐이

28) Ibid., II, ii, 12, 270.

29) Ibid., II, xi, 11, 460.

다.”³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완전성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였다. 그는 특히 이점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두 그루의 나무 즉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성례적 나무 (sacramental trees)로써 일종의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칼빈은 이 두 그루의 나무 자체가 생명을 주거나 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힘을 가진 나무로 보지 않고 그 나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증하는 외적인 표적 (outward signs)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두 그루의 나무는 성례 (sacraments)라는 것이다.³¹⁾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키는 성례중의 하나인 세례를 통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주는 세례란 새 언약의 축복을 보증하는 상징적 인침이다. 이 세례를 시행하게 될 때 새 언약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시행 할 때에 그 세례 혹은 세례에 사용되는 물(水) 자체가 실제적으로 세례 받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그가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새 언약의 의식으로 세우시면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상기의 놀

30)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 John King, (Grand Rapids: Baker, rep. 1979), 95.

31) 칼빈은 성례 (sacrament)를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진 $\mu\sigma\tau\acute{\eta}\rho\iota\omicron\nu$ 이라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단어로 이해 하였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 중 이 $\mu\sigma\tau\acute{\eta}\rho\iota\omicron\nu$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 특별히 엡 1:9, 3:2-3, 골 1:26-27, 딤후전 3:16에서의 하나님에게 관련된 비밀은 신비로우면서도 성경한 것이기에 라틴 교부들이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sacrament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Institutes*. IV. xiv. 2. 1277-78.

62 총신대 논총/ 김인환

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세례는 외적인 의식이지만 성례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두 그루의 나무도 외적인 상징으로서 이러한 성례라는 것이다.³²⁾ 칼빈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세우신 상징적 나무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나무를 아담에게 주심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은 그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산다는 사실과 생명이란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며, 결국 “이 나무 속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고, 또 행동한다는 선언에 대한 가시적 증언이 있다”고 하였다.³³⁾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계속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존하며 그 아들 이외의 어느 곳으로 부터도 생명을 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담은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표적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³⁴⁾ 라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³⁵⁾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였으며, 그리스도는 언약의 핵심이다.³⁶⁾ 그러므로 칼빈이 이 생명나무를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았다면 결국 이 생명나무는 언약의 상징이라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이 생명나무가 언약의 상징이라면, 타락 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은 성례와 언약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데서도 타락 전 아담

32) Calvin, *Genesis*, 115-18.

33) *Ibid.*, 117.

34) *Ibid.*

35) Calvin, *Institutes*, IV, viii, 6-7, 1153-55.

36) *Ibid.*, II, vi, 3-4, 345-48.

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³⁷⁾ 칼빈은 하나님만이 성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님은 그의 약속들을 언약들이라고 부르며, 그의 성례들을 언약들의 표 (tokens)로 부른다.”³⁸⁾라고 하였으며, “성례란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이 공인되는 인봉 (印封),”³⁹⁾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성례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대표한다고 하였다.⁴⁰⁾ 이것은 칼빈이 성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타락 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성례를 세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아담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례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칼빈은 하나님이 이러한 외적 표적을 사용하여 성례를 세움으로 모든 것의 실재를 충분히 보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며 그 은혜에 집중하고 사로 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성에 도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례들이란 하나님의 은총의 증언들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느끼시는 선한 뜻의 인봉과 같은 것으로써 우리들

37)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2 vols. tr.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1:383.

38) Calvin, *Institutes*, IV, xiv, 6, 1280-81.

39) *Ibid.*, IV, xix, 2, 1450.

40) *Ibid.* 칼빈은 약속이라고 하였으나 같은 paragraph에서 약속을 언약과 동일시 하였으므로 이곳에서의 약속도 언약으로 고쳐 읽어도 조금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칼빈은 물론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동일시 하지 않았지만,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며, 이곳 이외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언약과 약속을 동일시하였다. *Ibid.*, III, xx, 25, 884; IV, xiv, 11-12, 1334; IV, xix, 2, 1450;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79), 340.

을 향한 그 선한 뜻을 증언하므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 육성, 확인, 증가시켜준다.”⁴¹⁾

칼빈은 타락 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위해 세우신 성례들도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세워 졌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생명 나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에게로 오를 수 (ascend to him) 없음을 인식하였기에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는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⁴²⁾ 칼빈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생명나무와 동일한 성례로써 아담을 위해 주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한 나무의 금지는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수 없이 많은 탁월한 은사들로 치장되고 또 가꾸어진 인간이 방탕으로 빠져 들지 않도록 하기위해 어떤 제한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한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존경하는데 익숙하도록 의도하였다. 참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즉, 앞에서 암시 한 것처럼 아담이 정도에 넘도록 현명해지고자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 의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고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 나무의 열매의 금지는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감독자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뜻에만 의존하고 그 분의 명령에 항상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순종에 대한 첫 교훈이었다.⁴³⁾

41) Ibid., IV, xiv, 7, 1282.

42) Calvin, Genesis, 115.

43) Ibid., 126.

그리고 그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되게 살고 또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였다.⁴⁴⁾ 칼빈은 창 2:16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를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복종에 대한 표식으로 이 법을 인간에게 부과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따라서 한 나무의 실과만을 따 먹지 못하게 금지 한 것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성례로 삼았다는 것이다.⁴⁵⁾ 칼빈은 이 법을 자연 법 혹은 내적 법(natural law or inward law)이라고 부르면서 이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후 언약의 법으로 주신 십계명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 칼빈은 현재 범죄한 우리들의 마음에 내재 하는 자연법은 창조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으므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 계속 상존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이 범죄하여 부패해 지고 무능해 지므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따라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둔함과 교만함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연 법속에서 너무 모호해 진 것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한 증언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무관심을 털어 내 버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기억을 보다 활기있게 두드리기 위해 한 성문화된 법을 마련해 주셨다”⁴⁶⁾고 하였다. 칼빈이 이 인용구에서 말하는 성문화 된 법이란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의 법으로 주신 십계명을 가르킨다. 이렇게 칼빈은 창조 시에 아담에게 주신 법과 십계명의 상호 연관성 및 그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결국 칼빈이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이 언약의 관계 아래에

44) Ibid.

45) Ibid., 125-26.

46) Calvin, *Institutes*, II, viii, 1, 368.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 이처럼 타락 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언약적이었음을--비록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나타내고 있다. 칼빈의 이러한 신학 사상은 소위 칼빈 이후에 등장하는 언약 신학자들의 내용과 부합함을 고려할 때 후기 언약 신학자들이 그들의 신학을 칼빈과 무관하게 발전시켰다기 보다는 칼빈의 이러한 전체적 사상의 테두리속에서 칼빈이 기초를 놓은 신학을 언약 신학의 체계속에서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이나 은혜 언약 (구속 언약) 등의 명칭등을 개발하여 보다 명료하게 발전시키고 또 구체화하면서 묘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면은 칼빈의 종말론적 창조관을 통해서도 분명해 진다. 지면 관계상 이 짧은 논문에서 칼빈의 종말론적 창조관을 상세하게 다룰 수 없으나 지금까지 살펴 본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해와 타락 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위해 세우신 성례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칼빈은 결코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은 아담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며, 이것은 일종의 조건적인 것으로써 그에게 부여된 순종의 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빈은 창세기 2:7 주석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가 아담이라는 인물안에서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산 영 (living soul)과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주시는 살아 난 영 (quickenning spirit)을 서로 대조하였다 (고전 15:45). 그러나 아담의 타락 전 인간의 생명이 오직 지상적이어서 확고하거나 안정된 영속성이 없는 것에 비해서 우리들이 천성적인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여된 특별한 유익

이다.⁴⁷⁾

또한 칼빈은 타락 전 에덴 동산에 세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하여 세운 성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담은 그의 순종을 시험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즐거이 있을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 당하였다.....그러나 그가 생명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동안 영생을 소망하도록 된 약속은, 반대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맛 보는 순간 죽음을 당한 다는 죽음에 대한 지독한 위협은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⁴⁸⁾

칼빈은 아담이 타락 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내용을 주석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정 첫 사람은 만약 그가 똑 바른 상태로 만 있었다면 더 나은 생활로 들어 갔을 것이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하거나, 부패나, 파괴등이 없었을 것이며, 간단히 말해서 급격한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⁴⁹⁾

이러한 창조론에 관한 종말론적 주제는 종교 개혁가 Luther와는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그의 신학은 칼빈 이후 발전된 소위 행위 언약의 내용과 매우 잘 들어 맞는 내용이다.⁵⁰⁾

더욱이 주목할 것은 칼빈의 이러한 창조 언약의 신학이 하나님의

47) Calvin, *Genesis*, 112-13.

48) Calvin, *Institutes*, II, I, 4, 245. 칼빈의 이러한 사상이 그의 저술 *Concerning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 J. K. S. Reid, (London: James Clarke & Co. Limited, 1961), 44, 50-52, 56, 57등에서도 발견된다.

49) Calvin, *Genesis*, 180.

50) Karlberg, *The Mosaic Covenant and the Concept of Works*, 75-76.

68 총신대 논총/ 김인환

창조로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후에 맺어진 제반 언약속에서 갱신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간 중심 설계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통하여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날의 언약 신학의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창조 언약이 구속 언약속에서 계승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새 언약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이 옛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타락 전 아담에게 주신 율법의 성문화로 이해하고 있는 점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잘 들어 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을 타락한 창조의 회복과 그 영광으로 이해 하고 있다는 데서 더욱 더 잘 들어 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칼빈이 타락 이후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언약의 많은 주제, 즉 오늘 날의 은혜 언약에 상관된 많은 주제로 설명하고 있음을 밝힐 때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많은 언약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며, 그리고 본 논문의 지면의 한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단지 칼빈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비록 그 사역의 형태에 있어서 차이를 갖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언약이란 광범위한 체계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 lordship of God), 예정, 구원, 성경관, 성례, 교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종말론, 인간의 도덕적 생활, 인간의 삶의 책임과 그 결과, 성도의 견인과 악한 세상과 악인의 심판 등등을 모두 언약과 상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4. 결론

지금까지 칼빈주의 신학과 언약 신학이 왜 동일시 되어야 하는가를 논하기 위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들을 분석하면서 그의 저술 속에 나타난 특별히 행위 언약의 요소들을 살펴 보았다. 지

금까지의 분석의 결과는 칼빈의 사상은 오늘 날 언약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살펴 본 칼빈의 저술 속에 나타난 칼빈의 언약은 구원의 한 면을 설명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그의 신학의 한 주제가 아니라 창조와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역사의 모든 진행과정과 그에게서 이루어진 구원의 전체를 체계화 시켜주는 한 중심 사상이며, 그의 신학의 핵심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칼빈이 창조 언약 혹은 행위 언약, 구속 언약 혹은 은혜 언약 등의 언약 신학의 핵심적인 체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그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깨닫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그의 신학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한 우리들은 칼빈의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 결론 짓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칼빈 이후 지금 까지 칼빈처럼 성경의 권위를 신앙과 학문과 제반 생활의 최상의 권위로 인정하며 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밝히고자 헌신해 온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들에게도 칼빈 못지 않게 풍성하게 허락되었다. 그 결과 칼빈이 성령의 조명속에서 깨달아 그의 저술을 통하여 기초를 놓은 바를 그들은 더욱 발전 시켜 오늘의 언약 신학으로 발전시켰음을 주지해야 한다. 오늘의 언약 신학이란 칼빈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정리한 그 신학을 보다 분명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신학이다. 간단히 말하면, 언약 신학이란, 칼빈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 구체화된 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그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을 체계 있게 이해하게 해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그 관계속에서 설정된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들의 위치, 우리에게 부여된 언약적 책임의 내용과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체계화 시켜 오늘의 성도들의 삶의 본질과 방향과 의무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며, 또한 소위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체계화와 일원화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을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며, 그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 준다. 지금까지의 한국 개신교가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을 유지해 오면서도 이러한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이며 그 체계인 언약 신학을 정립하여 실생활에 적용 실천하지 못하므로 사변화 되었거나 경직되었으며, 일종의 구호로 전락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무기로, 성도들의 삶을 이원화 시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한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반면, 극단적인 저 세상 지상주의로 정착시키는 도구가 되어 왔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로 자칭하는 신학자와 목회자, 칼빈주의를 연구하고 그 신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칼빈주의 연구소와 칼빈주의 신학교와 그 교회들 모두가 오히려 가장 비 칼빈주의적인 사고와 생활을 서슴치 않는 결과를 빚었다. 우리는 칼빈의 신학체계에서 출발한 언약 신학을 정착시켜 이러한 비 칼빈주의적 모습을 크게 반성하고 올바른 칼빈주의의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